



‘함께 성장하는 스승♡제자’는 제자들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한 교사들의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지도 노하우를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 “말 꺼내기 어려웠던 학생들, 몸으로는 표현하더라고요”

※ 이 사례는 김신실 경기 일신중 상담교사의 사례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저는 지난 2월까지 경기 역곡중에서 상담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역곡중에서는 또래 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정서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으로 무용 및 동작을 활용한 상담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외부 기관의 통합예술치료사와 협업해 진행된 이 상담치료는 많은 학생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주었지요.

### 위로에 굳이 말이 필요한가요?

말을 매개로 진행되는 상담은 종종 한계에 부딪힙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남에게 꺼내 본 경험이 많지 않은 아이들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인지 말로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설사 안다고 해도 말을 꺼내기 부담스러워하지요.

역곡중에서는 이런 친구들을 위해 무용·동작 상담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공을 던지거나 슌래잡기를 하는 등 몸을 움직이는 ‘동작’ 수준에서 시작하다가 점차 몸을 쓰는 것에 익숙해지면, 자신의 마음 상태나 기분을 춤으로 표현해보는 단계까지 나아갔지요. 특정 춤 동작을 배우거나 익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용수가 된 듯 몸이 가는대로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이었죠.

한 번은 자신이 가장 힘들었을 때를 몸으로 표현해보도록 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가슴을 치는 듯한 동작을 보여줬고, 어떤 친구들은 쪼그려 앉아 눈물을 흘리는 듯한 동작을 취하기도 했지요. 그 다음에는 다른 친구들이 몸으로 그 친구들을 위로해보도록 했습니다. 등을 토닥여 주는 듯한 동작을 취하는 친구부터 팔을 흔들면서 상대를 즐겁게 해 주려는 친구들까지 다양한 몸의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이처럼 위로가 동작으로 이뤄지자 아이들은 큰 불편함 없이 상대의 위로를 받아들였습니다. 굳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이 오고 가지 않으니 심리적 저항이 덜했습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몸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 몸으로 친해져요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특징은 서로에 대한 칭찬과 위로, 관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춤을 추면 다른 학생들은 그 학생을 바라봐 주고, 칭찬해주지요. 때로는 그 춤을 그대로 따라해 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감을 얻게 되고 한편으론 배려하는 법, 협동하는 법 등을 배워갑니다. 함께 하는 친구들과도 친해지게 되죠. 평소 학교생활을 하면서 다른 또래 친구들과 제대로 관계를 맺어 본 적이 없던 학생들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이런 무용·동작 치료는 최근 통합예술치료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꼭 언어를 통하지 않아도, 신체적인 움직임과 활동을 통해 심리적인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다는 점을 실감한 저는 앞으로도 이런 방식의 상담 치료를 계속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 우리학교 연구모임·동아리를 소개합니다

활발하게 활동 중인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소개하고, 이 활동이 학생 지도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를 알려드립니다.

부산 용수중 교사동아리 ‘수업의 달인’

### “동료 교사의 실제 수업 영상 보며 자극 받아요”



자신의 수업 운영 노하우를 동료 교사에게 설명하는 모습. 부산 용수중제공

부산 북구에 위치한 용수중에는 ‘토의토론모임-토토모’, ‘배움의 싹을 틔우다-배싹’ 등 여러 교사 모임이 활발히 운영 중이다. 부산교육청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단위학교 내 교사 동아리 및 연구모임을 적극 장려하며 예산을 지원한다.

지난 2월까지 용수중에 근무했던 윤선미 만덕중 수석교사도 교육청으로부터 일정 예산을 지원받아 ‘수업의 달인’을 운영했다. 총 11명의 교사가 참여하는 이 동아리는 이름 그대로 ‘수업의 달인’이 되기 위해 교사들이 서로 수업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모임. 신규 발령 교사 및 기간제 교사와 경력 교사들이 비슷한 비율로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이 동아리를 만들고 이끌어 온 윤 수석교사에게 동아리 운영 방식과 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 영상으로 확인하는 동료 교사의 수업

수업의 달인은 한 달에 2번,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로 모임 날짜를 정해 방과 후에 2시간씩 수업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1학기에는 각자의 수업을 공유하며 아이디어를 모았고 2학기에는 수업 경력이 풍부한 교사가 다른 교사들에게 자신의 수업 운영 노하우에 대해 설명하고 가르쳐 주는 강의 시간이 이어졌다.

수업 공유는 실제 수업이 녹화된 영상을 활용했다. 용수중은 모든 교사가 1학기에 교장, 교감, 수석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 공개를 실시하고, 해당 공개 수업은 모두 영상으로 녹화한다.

수업의 달인은 1학기 때 이 녹화 영상을 활용해 수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료 교사들의 수업 영상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토의토론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이나 수업보조자료를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 등을 익힌 것.

윤 수석교사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는 수업 공개를 통해 여러 교사들의 수업을 관찰할 수 있지만, 다른 교사들은 동료 교사들의 수업을 볼 기회가 많지 않다”면서 “각자 10분 내외로 요약된 자신의 수업 영상을 준비 해 와 서로 공유

했는데, 담당 교과 뿐 아니라 다른 교과 교사들의 수업 스킬까지 배울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 ‘수업공부’ 통해 함께 발전하는 교사들

2학기에는 경력이 오래된 교사들이 다른 교사들에게 자신의 수업 운영 노하우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시간을 갖는다. 윤 수석교사는 주사위를 활용한 아이스 브레이킹의 구체적인 방법을 동료 교사들에게 소개했다.

가로 6칸, 세로 6칸으로 구성된 판에 아이들의 이름 같이 학생들이 좋아할만한 주제어를 절반 정도 넣고, 나머지 절반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문항을 넣는 것. 매 수업시간이 시작할 때마다 학생들은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숫자만큼 이동하면서 적힌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하는 방식이다. 윤 수석교사는 “이전에 배운 내용을 확인함과 동시에 수업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이처럼 서로의 수업 노하우를 주고받으며 교사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윤 수석교사는 “수업을 공유하다 보면 선생님들 스스로 ‘나한테 이런 장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 자신감이 많이 생긴다”면서 “자신감을 발판 삼아 자신의 수업을 공유하고 발표하는 데 주저함이 사라지게 되고, 그럼 다시 좋은 수업 노하우가 활발하게 공유되는 등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자유학기제’에 자랑하고, 학생 지도 노하우를 공유해주세요. 자유학기제 편집팀 이메일(edudonga@donga.com)로 연락처와 사연을 보내주시면 담당기자가 전화를 드립니다.